

뉴스홈 | 최신기사

## '체력난' 현대건설, 3월 1일 도로공사 잡고 안방서 1위 확정할까

송고시간 | 2022-02-24 08:34

장현구 기자  
기자 페이지

| 25일 인삼공사-도로공사 연승이 챔피언결정전 직행 최상 시나리오



'정규리그 우승 쉽지 않네'

(김천=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3일 오후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현대건설 선수들이 0-3으로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이날 현대건설은 도로공사에 패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짓지 못했다. 2022.2.23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체력난'에 발목이 잡힌 여자프로배구 선두 현대건설이 챔피언결정전 직행을 다음달로 미뤘다.

현대건설은 23일 한국도로공사에 세트 스코어 0-3으로 저 승점 79에 묶였다. 2위 도로공사는 승점 3을 보태 63으로 1위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16으로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리그가 잠시 중단됐다가 21일 재개하면서 현대건설은 22일 IBK기업은행전에 이어 23일 도로공사 경기를 이틀 내리뛰었다.



우려했던 체력에서 현대건설은 도로공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하루 쉬고 대전으로 이동해 치르는 25일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추격자 도로공사를 따돌리고 현대건설이 정규리그 1위를 일찍 확정 지을 최상의 시나리오는 인삼공사를 꺾고 3월 1일 안방인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도로공사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승리하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25일 인삼공사를 상대로 승점 3을 얻고, 도로공사가 27일 페퍼저축은행에 승점을 못 얻고 패하면 현대건설이 1위를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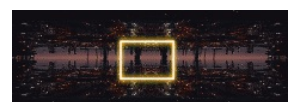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확정하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승리 후 기뻐하는 도로공사 선수들'

(김천=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3일 오후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가 안방에서 3-0 승리하면서 현대건설의 정규리그 우승 확정을 저지했다.

사진은 경기 종료 후 기뻐하는 도로공사 선수들 모습. 2022.2.23 psjsj@yna.co.kr

현대건설이 체력을 회복해 인삼공사를 제압하고, 도로공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무난히 승점 3을 챙긴다면 두 팀은 격차 15 또는 16을 유지한 채로 6라운드로 향한다.

현대건설이 6라운드 첫 경기인 3월 1일 도로공사전에서 승리하면 승점 차는 17 이상으로 벌어진다.

이러면 도로공사가 남은 5경기에서 승점 3씩 챙겨 15를 보태더라도 현대건설을 넘을 수 없어 현대건설이 챔피언결정전에 곧바로 오른다.

압도적인 시즌을 구가하는 현대건설의 연승 행진에 두 번이나 제동을 건 유일한 팀이 도로공사여서 3월 1일 두 팀의 대결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정규리그 개막 후 12연승을 질주하다가 지난해 12월 7일 도로공사에 2-3으로 저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이후 다시 V리그 여자부 최다인 15연승을 내달리다가 도로공사에 이번에는 한 세트도 얻지 못하고 0-3으로 무릎 꿇었다.

이번 시즌 27승을 거둔 현대건설은 도로공사에만 딱 두 번 졌다.

도로공사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은 두 차례 패배를 설욕할 기회이자 안방에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할 찬스다.

도로공사가 3월 1일에도 현대건설을 누르면 두 팀의 격차는 줄어 1위 싸움은 더욱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4위 인삼공사가 3위로 '봄 배구' 막차를 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3위 GS칼텍스(승점 53)와 인삼공사(승점 41)의 격차는 상당하다.

남은 경기를 매일 결승전처럼 치러야 하는 인삼공사가 GS칼텍스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GS칼텍스가 6라운드 초반 일찍 3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cany9900@yna.co.kr



We Do Technology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

尹당선안 안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 관련기사

우승 확정 막았다...도로공사 박정아 "안방 못 내주죠"

"안방 잔칫상 No!" 도로공사, 현대건설 우승 축포+16연승 저지

코로나19로 텅 빈 관중석...여자배구, 126일 만에 무관중 경기

야스민 "새로운 가족 현대건설 동료들...멋진 여정을 함께"

강성형 감독 "15연승 만든 선수들 고마워...나를 맘껏 때려라"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08:34 송고

#프로배구

#현대건설

#도로공사

#체력난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51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재개 예열? 56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TONG TONG Culture

TONG TONG TECH

TONG TONG wing

ESPAÑOL

한반도

SNS

f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리